

## 전기수와 판소리

여러분은 전기수에 대해 들어 보았나요? 조선 후기에 직업적으로 사람들에게 소설을 읽어 주던 사람을 말합니다. 전기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당시 유행하던 소설을 읽어 주었습니다. 책을 읽는 솜씨가 워낙 뛰어나 전기수가 흥미로운 대목에서 읽기를 멈추면 사람들은 다음 내용이 궁금해 앞다투어 돈을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 판소리



북을 치며 장단을 맞추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연을 판소리라고 합니다. 북을 치는 사람은 고수, 창을 하는 사람을 명창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따로 무대가 없이 노래를 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판소리 무대가 되었습니다.

전기수도 인기가 많았지만 판소리에는 이야기에 노랫가락이 더해지면서 더 구슬프게 장면 장면이 더 공감하도록 연출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판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이렇게 다섯 마당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판소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젊은이들도 현대음악과의 새로운 실험을 통해 판소리를 재창조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밴드가 이날치 밴드입니다.



이날치 밴드는 전통적인 판소리에 현대적인 팝 스타일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음악으로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밴드 이름인 이날치는 조선 후기 8명창 중 한 명인 이날치(李捺治, 1820 ~ 1892)에서 따왔다고 합니다.